

해남군, 임신·출산 촘촘한 지원 강화

20~49세 가임력 검진 누구나 가능 난임부부 시술비 출산당 25회 확대 건강상담 등 맞춤형 관리 서비스 운영 “저출생 극복 인구 감소 적극 대응”



해남군이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해남을 만들기 위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1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가임력 검진을 통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20~49세 남녀 누구나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난임 진단검사비를 최대 3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출산당 최대 25회로 확대하고 지원횟수를 초과한 난

임부부에게는 추가로 전남형 난임시술비도 지원한다.

한방난임치료, 정관난관 복원술,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해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폭넓게 구입할 수 있다.

올해는 2024년생 출생아가 1세가 되는 시기부터 전남도 출생기분수당이 지급되면서 매달 20만원씩 18세까지 총 4320만원을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도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을 확대했으며 생애

초기 사업을 통해 임신부 및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건강상담 및 영아 발달 교육,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남군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70% 감면, 민간산후조리원 50만원을 지원해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촘촘한 지원으로 앞으로도 해남군의 임신·출산 정책을 한층 강화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완도군, 828가구 사회조사 시행 9일까지... 면접 조사 원칙

완도군은 오는 9일까지 관내 표본 가구로 선정된 828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전남도·완도군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사회조사는 군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의 흐름을 조사해 삶의 질적 수준과 사회 상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관내 828개 표본 가구 내 만 15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이며 조사 항목은 총 45개 문항으로 전라남도 공통 항목인 가구·가족, 소득, 교육, 여가 활동 등 30개 문항과 완도군 특성 항목인 해양치유산업 발전 방안, 군정 주요 정책 방향 등 15개 문항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응답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표를 배부해 응답자가 작성한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병행해 진행한다.

군은 정확한 통계 자료 수집을 위해 조사 지침과 조사 요령, 조사표 작성에 대한 통계 조사 사전 교육을 지난달 25일에 진행한 바 있다.

사회조사 결과는 오는 8월 완도군 누리집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사회조사 결과는 군민 삶의 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도=정태영 기자

학습 매니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해남군교육재단

해남군교육재단이 오는 10일까지 학습 매니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1일 해남군에 따르면 학습매니저는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활동을 하는 평생교육 전문 자원활동가로,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은 오는 21일부터 5월7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총 6회에 걸쳐 해남군 평생학습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과정은 △평생학습의 이해 △학습매니저의 역할 △디지털 역량 강화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 등 총 6개로 이뤄진다.

모집 인원은 15명으로 해남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군민 중 차량을 보유하고 컴퓨터 문서 작업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학습 매니저 양성과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교육재단 미래교육팀(061-537-780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학습매니저 양성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해남군 두륜산 천년고찰 대흥사 '대흥매(大興梅)'가 활짝 피어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밝히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대흥사 '대흥매(大興梅)' 만개

해남 두륜산에 위치한 천년고찰 대흥사의 '대흥매(大興梅)'가 환한 꽃들을 열었다.

1일 해남군에 따르면 대흥사 적묵당 앞 대흥매는 수령 350년가량으로 추정되는 백매화로, 초의선사가 특히 사랑했다고 해 '초의매'라고도 불린다.

다성(茶聖) 초의선사(1786-1866)는

대흥사 13대 종사로서 '선다일여(禪茶一如)'의 사상을 주창하며 조선 후기 차 문화의 중흥을 일군 인물이다.

당시 직접 창건한 대광명전(동국선원)에 거처하던 초의선사는 1811년 일어난 천불전 화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매화나무를 대광명전 옆 적묵당으로 옮겨고 보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해남=전연수 기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신안군, 30일까지

신안군은 지난해 기준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이 2개 이상 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장은 각각 신고해야 하며, 1개 지자체에 한꺼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인 6월2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인 6월30일까지 분납 납부할 수 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등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민원봉사과(061-240-8328)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인 30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16일까지 연장

완도군이 '2025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기간을 연장한다.

1일 완도군에 따르면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인구정책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 접수 기간을 오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모 주제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청년 지원, 생활 인구 유입 확대, 귀농·귀여·귀촌 활성화 등 인구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완도군 발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는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으로 방문, 우편, 전자우편으로 참가 신청서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과 자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제2025-383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사업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효율성, 노력도 등을 평가해 대상 1명(100만원), 최우수상 1명(70만원), 우수상 2명(각 50만원), 장려상 3명(각 30만원), 노력상 4명(각 10만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 발표 및 시상금 지급은 5월 중 진행된다.

스님들의 수행처로서 관람객의 발길이 뜸한 적묵당 앞에 위치한 대흥매는 대흥사 신도들 사이에서만 알려진 비경으로, 기품 있는 고목에 피어난 환한 백매화를 보기 위해 초의선사를 기리는 이들의 조용한 발길이 이어져 왔다.

한편 천연기념물 제173호인 왕벚나무 자생지가 위치한 두륜산 도립공원 쉼터에서는 오는 5일부터 두륜산왕벚꽃길 리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해남=전연수 기자

완도군, 인구정책 아이디어 접수

완도군 관계자는 “군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가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공모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인구정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목포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조건... 월 10만원

목포시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0-5세 아동으로,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목포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며 보호자 1명 이상과 함께 전남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 또는 아동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보육료 바우처 지급이 중단돼 취학유예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까지로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체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를 발급받아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또는 목포시청 여성가족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 입소 아동도 같은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보육료 지원을 통해 외국인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외국인 아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